

# 1. 음운을 공부한다!

음운을 공부한다는 것은 말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와 운소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음운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 1 음운의 이해

(1)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

예 불-풀(ㅂ:ㅍ), 불-불(ㄷ:ㄱ)

(2) 음운의 종류: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1) 분절 음운: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 음소(音素)라고도 함.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음.

특성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음. 예 ㄱ, ㄴ, ㄷ, ㄹ...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으며,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 있음. 예 단모음: ㅏ, ㅑ, ㅓ, ㅕ...; 이중 모음: ㅗ, ㅛ, ㅜ, ㅠ...
반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으나, 단모음과 함께 이중 모음을 이루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음. 예 j, w

2) 비분절 음운: 고저(高低), 강약(強弱), 장단(長短)과 같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 음소에 얽혀 실현되며, 운소(韻素)라고도 함. 현대 국어 표준어에는 장단만이 비분절 음운임. 예 눈(目)-눈:(雪), 말(馬)-말:(言)



### 2 국어의 음운 체계

(1) 자음 체계: 자음은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인 조음 위치와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인 조음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예사소리)			ㅈ		
	경음(된소리)			ㅉ		
	격음(거센소리)			ㅊ		
마찰음	평음(예사소리)		ㅅ			ㅎ
	경음(된소리)		ㅆ			
	격음(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2) 단모음 체계: 혀의 위치(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혀의 위치(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ㅍ
중모음	ㅓ	ㅕ	ㅑ	ㅓ
저모음	ㅗ		ㅓ	

### ③ 국어의 음운 변동

- (1) 음운 변동의 개념: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 음운 변동 전후의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교체, 첨가, 탈락, 축약)로 구분됨.

#### (2) 음운 변동의 유형

- 1) 교체(대치): 한 음운이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말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으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소리가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밖 → [박], 부엌 → [부억], 꽃 → [꼇], 잎 → [입]
비음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물 → [궁물], 받는다 → [반는다], 입는다 → [임는다]
유음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 → [실라],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ㅑ'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각각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하-'가 올 때 'ㄷ'과 'ㅎ'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구개음화임. 예) 굳이 → [구지], 같이 → [가치], 닫히다 → [다치다]
경음화 (원소리되기)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 받침 'ㄱ, ㄷ, ㅂ' 뒤의 경음화 예) 국밥 → [국뽽], 민지 → [민찌], 출고 → [출꼬] • 어간 받침 'ㄴ, ㅁ' 뒤의 경음화 예) 신고 → [산꼬], 감다 → [감따]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의 경음화 예) 발달 → [발뽽], 질서 → [질써], 물질 → [물짚] •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의 경음화 예) 할 것을 → [할꺼슬]

## 2) 첨가: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b>'ㄴ' 첨가</b>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 첨가되는 현상 예) 맨입 → [맨닙], 숨이불 → [숨:니불], 한여름 → [한녀름]
<b>반모음 첨가</b>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ㅇ'가 첨가되는 현상.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아님. 예) 피어 → [피어/피여], 되어 → [되어/되여]

## 3) 탈락: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b>자음군 단순화</b>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묵 → [목], 값 → [갑], 젊다 → [참따], 읊다 → [읍따]
<b>자음 탈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ㄹ' 탈락: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ㄹ'이 'ㄴ, ㅅ' 등의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알-+-니 → [아:니], 알-+-시-+-고 → [아:시고]</li> <li>• 'ㅎ'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예) 넣어 → [너어], 쌓이다 → [싸이다]</li> </ul>
<b>모음 탈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ㅡ'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꼬-+-어서 → [꺼서], 담그-+-아도 → [담가도]</li> <li>• 동일 모음 탈락: 어간 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자-+-아서 → [자서], 서-+-어 → [서]</li> </ul>

## 4)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b>격음화 (거센소리되기)</b>	예사소리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입학 → [이팍], 좋다 → [조타], 각하 → [가카], 낄지 → [너:치]
-------------------------	--



## 2. 단어를 공부한다.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다양한 매체의 글들을 읽으며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고, 그 단어들의 뜻과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읽으면서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를 찾아 공부하면, 신문, TV,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기자와 작가들이 쓴 글을 무난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어 공부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작가들이 말하기를, 여러 부류의 책을 많이 읽어야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 외의 모든 행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단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읽는데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다양한 매체와 책을 읽으며 어휘력을 키우고, 그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글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1 단어의 분류

(1) 품사(品詞): 단어를 형태적·기능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 국어의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가 있음.

#### (2) 품사 분류의 기준

1) 형태: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음.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고, 불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어(가변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임.

- ㉠ • 가변어: 먹다(먹고, 먹니, 먹어서, 먹습니다...), 예쁘다(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쁩니다...), 이다(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 불변어: 달, 우리, 넷, 현, 무척, 을/를, 아이고

2) 기능: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역할)을 기준으로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음.

3) 의미: 단어 부류가 지닌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음.

[품사의 분류]



#### (3) 품사별 특성

1) 체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음.

품사	특성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li> <li>•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고유 명사로 나뉨. ㉠ 책상, 평화(보통 명사) / 신라, 이황(고유 명사)</li> <li>•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와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로 나뉨. ㉡ 바다, 마을(자립 명사) / 것, 때문(의존 명사)</li> </ul>

대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li> <li>• 사람 표시의 인칭 대명사와 사물이나 장소 표시의 지시 대명사가 있음.</li> <li>예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우리... / 지시 대명사: 여기, 그곳, 저것...</li> <li>• 모르는 사람, 사물,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미지칭,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이라 함. 주로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재귀칭이라고 하며, 국어에서 재귀칭은 3인칭에서 나타남.</li> <li>예 미지칭: 무엇, 언제... / 부정칭: 아무, 누구... / 재귀칭: 자기, 당신...</li> </ul>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li> <li>•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가 있음.</li> <li>예 양수사: 하나, 둘, 셋, 일(-), 이(二), 삼(三), 서넛... 서수사: 첫째, 둘째...</li> <li>• 수사에는 정확한 수와 대략의 수가 있음.</li> <li>예 정확한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이, 삼, 사, 첫째, 둘째... 대략의 수: 한둘, 서넛, 너덧, 한두째...</li> <li>•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있음.</li> </ul>

2) 용언: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음.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꾸밈을 받음.

품사	특성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li> <li>•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필요하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라고 함.</li> <li>예 타동사: 알다, 부르다...</li> <li>자동사: 피다, 솟다...</li> </ul>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li> <li>• 성질이나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 성상 형용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가 있음.</li> <li>예 성상 형용사: 크다, 푸르다, 차갑다...</li> <li>지시 형용사: 그러하다, 어떠한다, 아무러하다...</li> </ul>



- ☞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름.
-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음.
    - 예 현재 시제 평서형: 잔다/먹는다(동사), \*예쁘다/\*좁는다(형용사)
  -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으)ㄴ’이 붙음.
    - 예 현재 시제 관형사형: 자는/먹는(동사), 예쁜/좁은(형용사)
  -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이지 않음.
    - 예 명령형/청유형: 자라/먹자(동사), \*예빠라/\*좁자(형용사)
  -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 ‘-고자’ 등이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음.
    - 예 -(으)려고/-고자: 먹으려고/먹고자(동사), \*좁으려고/\*좁고자(형용사)

3) 수식언: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로, 관형사와 부사가 있음.

품사	특성
관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li> <li>•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 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있음.</li> <li>예) 성상 관형사: 새, 흰, 옛, 맨...</li> <li>지시 관형사: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 그런, 저런...</li> <li>수 관형사: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댓/다섯...</li> </ul>
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li> <li>예) 활짝, 아주, 실로, 비록...</li> <li>•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드물게 체언을 꾸미기도 함.</li> <li>예) 아주 새 책</li> <li>그는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li> <li>바로 너</li> <li>•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li> <li>예) 빨리 밥을 먹어라. / 밥을 빨리 먹어라.</li> <li>•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가 있음. 문장 부사에는 '그리고,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도 포함됨.</li> <li>예) 성분 부사: 날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린다.</li> <li>문장 부사: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li> </ul>

4) 관계언: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조사가 있음.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이 있는 말(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나타남. 쓰임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뉨.

조사	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가 있음. 예) 이/가, 께서, 을/를, 이다, 의, 에, 에서, (으)로, 아/야...
	보조사	체언,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예) 은/는(대조), 만(단독), 도(포함)...
	접속 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예) 와/과, 하고, (이)랑...

5) 독립언: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로, 감탄사가 있음. 독립언은 다른 말과 떨어져 혼자서 쓰일 수 있음.

감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li> <li>예) 앓, 와, 얼씨구, 오호, 야, 네, 음...</li> <li>•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 뒤에는 흔히 쉼표(.)를 찍음.</li> </ul>
-----	---

## 2 단어의 형성

### (1) 형태소

1) 형태소: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예문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였다.
형태소	나, 는, 잘, 익-, -은, 과일, 을, 아이, 에게, 먹-, -이-, -었-, -다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나, 잘, 과일, 아이
	의존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는, 익-, -은, 을, 에게, 먹-, -이-, -었-, -다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어휘 형태소라고도 함 예) 나, 잘, 익-, 과일, 아이, 먹-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고도 함. 예) 는, -은, 을, 에게, -이-, -었-, -다

### (2) 단어

1) 단어: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함.

예문	저 넓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오래 살았다.
단어	저, 넓은, 밭, 을, 갈고, 있는, 사람, 은, 이, 마을, 에, 오래, 살았다

2) 단어의 구조

①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예) '헛소리'의 '소리', '맨발'의 '발', '가위질'의 '가위', '놀이'의 '놀-'
접사	어근에 붙어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 예) '헛소리'의 '헛-', '맨발'의 '맨-', '가위질'의 '-질', '놀이'의 '-이'

②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눔.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예) 바다, 물, 깊다, 빠르다	
복합어	합성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둘 다 어근인 단어 예) 집밥('집'과 '밥'으로 분석되며 둘 다 어근에 속함) 잘못('잘'과 '못'으로 분석되며 둘 다 어근에 속함)
	파생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둘 중 하나가 접사인 단어 예) 헛돌다('헛'과 '돌다'로 분석되며 '헛-'이 접사임) 빼기('빼'와 '-기'로 분석되며 '-기'가 접사임)

## 3) 합성어의 형성과 분류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합성어 예) 팔죽(명사+명사), 어린이(용언의 관형사형+명사), 걸어가다(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음.
비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합성어 예) 접칼(용언 어간+명사), 검뿔대(용언 어간+용언 어간), 보슬비(비자립적 어근+명사) →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에 연결된 '접칼', 어간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의 어간과 바로 연결된 '검뿔대'나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바로 명사를 꾸며 주는 '보슬비'와 같은 단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음.

## 4) 파생어의 형성과 분류

접두 파생어	어근의 앞에 접사(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예) 헛-: 헛기침, 헛수고, 헛디디다 군-: 군침, 군소리, 군식구
접미 파생어	어근의 뒤에 접사(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예) -질: 빗질, 걸레질, 도둑질 -(으)ㅁ: 믿음, 웃음, 잠

## ③ 단어의 의미

(1) 단어의 의미 관계: 단어들 간에는 여러 종류의 의미적 관련성이 있음.

유의 관계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유의어가 됨. 예) '간혹'과 '이따금', '걱정'과 '염려'
반의 관계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반의어가 됨. 예) '아버지'와 '어머니', '위'와 '아래'
상하 관계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포함하는 말을 상위어, 포함되는 말을 하위어라고 함. 예) '식물'(상위어)과 '소나무'(하위어), '현악기'(상위어)와 '가야금'(하위어)

(2) 단어의 의미 변화: 언어가 생성, 변화, 소멸하는 과정에서 의미 역시 변화함.

의미 확대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는 경우 예) 손: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킴. → '노동력'의 의미가 추가됨.
의미 축소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좁아지는 경우 예) 사랑하다(>사랑하다): '생각하다' 또는 '사랑하다'의 뜻 → '사랑하다'의 뜻만 남음.
의미 이동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일 없이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 예) 어엿쁘다(>어여쁘다): '불쌍하다'의 의미 → '예쁘다'의 의미로 바뀜.

### 4 단어의 표기

(1)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표, 표기 세칙,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됨.

1)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 ① 외래어는 현용 24 자모만 사용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표기함.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함.
  - 예 coffee shop: 커피숍(○), 커피썬(×)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bus: 버스(○), 뻬스(×)
-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
  - 예 camera: 카메라(○), 캐머러(×)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 표기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됨.

1)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2)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① 자음의 로마자 표기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ㅇ	ㄹ
g, k	kk	k	d, t	tt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ㄹ’은 ‘ll’로 적음.

② 단모음의 로마자 표기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③ 이중 모음의 로마자 표기

ㅘ	ㅙ	ㅚ	ㅜ	ㅞ	ㅟ	ㅛ	ㅜ	ㅞ	ㅟ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④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

- 자음 동화, ‘ㄴ’ 첨가, 구개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함.
  - 예 백마[뱅마]: Baengma, 신라[실라]: Silla,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해돋이[해도지]: haedoji, 놓다[노타]: nota
-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 예 죽변[죽뵐]: Jukbyeon, 팔당[팔땅]: Paldang



# 3. 문장을 공부한다.

문장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호를 의미로 변환하는 읽기 과정을 통해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학교 수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장과 문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문장을 공부한다는 것은 읽기, 문법, 단어 사용법 등 다양한 언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① 문장 성분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

예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경찰’은 행위의 주체, ‘도둑’은 행위의 대상, ‘잡았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임.  
이 문장에서 ‘경찰이’는 주어, ‘도둑을’은 목적어, ‘잡았다’는 서술어임.

## ② 문장 성분의 종류

- (1)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필수 성분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음.
- (2) **부속 성분**: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임. 관형어, 부사어가 있음.
- (3) **독립 성분**: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임. 독립어가 있음.

## ③ 문장 성분별 특성

### (1) 주어와 서술어

문장 성분	특성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li> <li>• 문장을 ‘무엇이 무엇이다/어떠하다/어찌하다’로 나타낼 때, ‘무엇이’에 해당함.</li> <li>• 주어는 체언 혹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가 붙어 나타나는데,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주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li> <li>예 누나가 공부를 한다. (주격 조사 ‘가’가 붙음.) 누나 지금 공부해. (주격 조사가 생략됨.) 누나도 공부를 한다. (보조사 ‘도’가 붙음.)</li> </ul>
서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li> <li>• 문장을 ‘무엇이 무엇이다/어떠하다/어찌하다’로 나타낼 때,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함.</li> <li>예 삼촌은 경찰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하늘이 노랗다. (무엇이 어떠하다) 형이 노래를 부른다. (무엇이 어찌하다)</li> <li>•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li> <li>①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함. 예 명수는 학생이다. 꽃이 피었다.</li> <li>②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예 그가 밥을 먹었다.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형은 의사가 되었다.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민들레는 썬바귀와 비슷하다.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li> <li>③ 세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예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li> </ul>

## (2) 목적어와 보어

문장 성분	특성
목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li> <li>•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나타나는데, 목적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예 나는 빵을 먹었다.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음.)            나는 빵 먹을래. (목적격 조사가 생략됨.)            나는 빵도 먹었다. (보조사 '도'가 붙음.)</li> </ul>
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li> <li>• 보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서 실현됨. 보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보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예 언니가 대학생이 되었다. (보격 조사 '이'가 붙음.)            언니가 대학생 되었어. (보격 조사가 생략됨.)            언니가 대학생은 아니야. (보조사 '은'이 붙음.)</li> </ul>

## (3) 관형어와 부사어

문장 성분	특성
관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li> <li>•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며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관형사형(용언 어간+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르, -던')으로도 나타남.            예 그녀는 옛 물건을 꺼냈다. (관형사) / 시골 풍경이 아름답다. (체언)            나는 어머니의 모자를 집었다.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음.)            어머니께서 예쁜 꽃을 사 오셨다.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음.)</li> </ul>
부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관형사, 다른 부사 또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함.            예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 (관형사를 꾸밈.)            회의는 정말 빨리 끝났다. (다른 부사를 꾸밈.)            과연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장 전체를 꾸밈.)</li> <li>•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부사형(용언 어간+부사형 어미)으로도 나타남.            예 일단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부사가 부사어가 됨.)            나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체언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붙음.)            그들이 길게 드리워졌다.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음.)</li> <li>•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므로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지만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함. 또 두 자리 서술어 중의 일부도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함.            예 나는 그를 친구로 여긴다. / 이 옷이 너에게 어울린다.</li> </ul>

## (4) 독립어

문장 성분	특성
독립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li> <li>• 일반적으로 독립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중간 혹은 끝에 올 수도 있음. 예 그렇게는, 음, 어렵네요. / 그렇게 하지요, 뭐.</li> <li>• 감탄사는 독립어로 쓰이며, 체언의 단독 형태나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남.            예 앗, 아기가 넘어졌구나. (감탄사) /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체언의 단독 형태)            민수야,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체언에 호격 조사 '야'가 붙음.)</li> </ul>

#### 4 문장의 구조(짜임)

(1) **출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

(2) **결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음.

1) 이어진문장: 두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p>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 '-고', '-(으)나', '-지만' 등의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열: ㉠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li> <li>• 대조: ㉡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다.</li> </ul>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p>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된 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유, 배경 상황, 조건·가정, 의도·목적, 양보, 중단·전환, 정도의 심화' 등의 의미를 지님. '-아서/-어서', '-(으)면' 등의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이유: ㉢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은 나가지 마.</li> <li>• 배경 상황: ㉣ 집에 가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li> <li>• 조건·가정: ㉤ 내일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놀러 가자.</li> <li>• 의도·목적: ㉥ 나는 어제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li> <li>• 양보: ㉦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li> <li>• 중단·전환: ㉧ 희주는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았다.</li> <li>• 정도의 심화: ㉨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li> </ul>

2) 안은문장: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으로, 이때 안겨 있는 절을 '안긴절'이라고 함.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p>명사의 기능(주어, 목적어, 보어 등)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고', '-기' 등으로 실현됨.</p> <p>㉠ 우리는 그가 <u>옳았음</u>을 깨달았다. 주인이 <u>강아지가 돌아오기</u>를 기다린다.</p>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p>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고, -는, -(으)고, -던' 등으로 실현됨.</p> <p>㉡ 나는 <u>형이 요리한 음식</u>을 좋아한다. 우리는 <u>그가 밥을 먹는 모습</u>을 보았다. 저것은 <u>내가 신을 신발</u>이다. / 저것은 내가 쓰던 <u>모자</u>이다.</p>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p>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듯(이)' 등으로 실현됨.</p> <p>㉢ <u>영수가 돈도 없이</u> 여행을 떠났다. / <u>사람들이 지나가도록</u> 길을 비켜 주자.</p>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p>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서술절로 안길 경우에는 어미나 조사와 같은 표지가 없음.</p> <p>㉣ 할머니께서 <u>건강이 좋으시다</u>. / 언니는 <u>마음씨가 곱다</u>.</p>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p>어떤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 인용절이 될 절에 조사 '(이)라고, 고'를 붙여 실현됨. 직접 인용에는 '(이)라고'를, 간접 인용에는 '고'를 사용함.</p> <p>㉤ 동생이 친구에게 <u>"어디로 가니?"</u>라고 물었다. (직접 인용) 동생이 친구에게 <u>어디로 가냐고</u> 물었다. (간접 인용)</p>

## 5 문장의 표현

- (1) **문장 종결 표현**: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줄여서 종결 표현이라고도 함.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

종결 표현	특성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이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 예)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의문문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판정 의문문: '예/아니오'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밖에 비가 오니? • 설명 의문문: '언제, 누구, 무엇' 등의 의문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언제부터 비가 내렸니? • 수사 의문문: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 예)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 (→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예) 학교에 일찍 와라.
청유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문장 예)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출발하자.
감탄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예)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네!



- (2)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뉜.

### 1) 주체 높임

- ① 화자가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주로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해 실현되지만, 주격 조사 '께서'나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함.
- ②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으)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함.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로 쓰임.
  - 예) 선생님께서서는 책을 읽으십니다. (직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댁에 책이 많으십니다. (간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댁에 계신다. (직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수업이 있으시다. (간접 높임)

2) 상대 높임: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됨. 상대 높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뉨.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3) 객체 높임: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여쭙다, 뵈다/뵈다’ 등의 몇몇 동사에 의해 실현되거나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됨.

- 예 나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

(3) 시간 표현

1) 시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발화시(화자가 말하는 시점)와 사건시(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뉨.

시제	특성
과거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li> <li>• 주로 선어말 어미 ‘-았-/-었-’에 의해 실현됨.</li> <li>예 우리가 그를 막았다. / 어제는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다.</li> <li>•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 ‘-았-/-었-’과 같은 형태를 쓰기도 함.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는 ‘-던-’을 사용함.</li> <li>예 우리는 어릴 때 같은 집에 살았었다. / 어제 보니 새로 가게가 생겼더라.</li> <li>•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이, 형용사와 ‘이다’에는 ‘-던’이 쓰임. 또 ‘-았-/-었-’ 다음에 ‘-던’을 덧붙여 쓸 수 있음.</li> <li>예 저것은 제가 {읽은/읽던/읽었던} 책입니다. 나는 그녀가 {학생이던/학생이었던} 시절을 회상했다.</li> </ul>
현재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li> <li>•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는-/-ㄴ-’에 의해 실현되고, 형용사나 ‘이다’의 경우에는 특정 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실현됨.</li> <li>예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 / 들판의 꽃이 정말 예쁘다.</li> <li>• 관형사절로 안길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형용사와 ‘이다’에는 ‘-(으)ㄴ’이 쓰임.</li> <li>예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우리 학교 회장인 선주가 도착했다.</li> </ul>
미래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li> <li>• 주로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실현되며,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진 ‘-(으)ㄹ 것(이)-’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li> <li>예 잠시 후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그는 오후에 도착할 것입니다.</li> <li>• 관형사절로 안길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임.</li> <li>예 저녁에 먹을 음식은 따로 덜어 두자.</li> </ul>

2) 동작상: 완료, 진행과 같이 사건을 이루는 동작의 시간적 모습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 어미로 표현되거나 보조 용언 구성 등에 의해 표현됨.

① 진행상: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예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② 완료상: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냄.

예 밥을 다 {먹었다/먹어 버렸다}. (완료)

꽃이 피어 있다. (완료된 결과 상태의 지속)

(4) 피동과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의미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능동 표현	의미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주동 표현
피동사 피동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쓰임. 예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사동사 사동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쓰임. 예 언니가 나에게 물을 먹였다.
'-아지다/ -어지다' 피동	용언 어간에 '-아지다/-어지다'가 결합함. 예 많은 음식들이 아깝게 버려졌다.	'-게 하다' 사동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함. 예 선생님께서 나를 집에 가게 하셨다.



(5) 부정 표현

	'안' 부정문(단순 부정, 의지 부정)	'못' 부정문(능력 부정)
의미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냄.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냄.
짧은 부정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를 사용함. 예 기름진 음식은 안 먹을래.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함. 예 동생은 아파서 죽도 못 먹는다.
긴 부정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않다/-지 아니하다'를 사용함. 예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을래.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함. 예 동생은 아파서 죽도 먹지 못했다.

(6) 인용 표현

1) 직접 인용: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 ")나 작은따옴표(' ')에 넣어 인용함. 직접 인용된 절에는 조사 '(이)라고'가 쓰임.

2) 간접 인용: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함. 인용절 속의 대명사,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서술어에 실현되는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이 원래의 발화와 달라질 수 있음. 간접 인용된 절에는 조사 '고'가 쓰임.

# 4. 담화와 중세국어

읽기는 문장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입니다.

읽기를 통해 담화를 이해하려면 담화의 구성 요소인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및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는 많은 고유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어는 현대 국어에 그대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소멸하거나 그 의미나 형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유어와 한자어가 섞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세 국어를 해석하려면 해당 시기의 어휘와 문법 구조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 문헌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 담화

### ① 담화의 개념 및 특성

- (1) **개념**: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맥락 속에서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드물게 하나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도 성립할 수 있음.
- (2) **특성**: 발화나 문장들이 모여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 통일성, 형식 면에서 응집성을 갖추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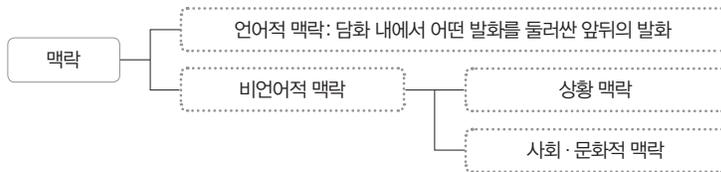
### ②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문장의 유형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를 직접 발화라고 하고, 일치하지 않는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함.

직접 발화의 예	간접 발화의 예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해 달라는 의도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가에 앉은 친구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는 의도로)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추워.

### ③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담화에서 맥락은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존재하며, 발화를 표현하고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맥락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나뉨.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담화의 수용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 화자(필자), 청자(독자), 목적, 시간, 공간, 환경 등이 구성 요소임.	담화의 수용이나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 국가 및 권력 기관, 제도,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이 포함됨.

## 국어사

### ① 국어사의 시대 구분

국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국어의 변화는 표기, 음운, 문법 등의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졌음. 국어사의 시대는 일반적으로 고대 국어(고려 건국 이전), 중세 국어(고려 건국 이후부터 16세기 말), 근대 국어(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 현대 국어(20세기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음.

### ② 고대 국어

(1) 표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함.

1) 고유 명사 표기: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인명, 지명 등을 표기함.

예)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현대어 풀이] 소나(素那)(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한자	뜻	음	한자	뜻	음
素	흰	소	金	쇠	금
那	어찌	나	川	내	천

→ ‘素那’와 ‘金川’은 각기 다른 인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명을 한자의 음을 이용한 방식과 뜻을 이용한 방식으로 표기한 것임.

2) 이두, 구결, 향찰

- ①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에 따라 한문의 어순을 조정하고 이에 토를 붙인 것
- ② 구결: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구절 아래 해당 부분에 조사,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를 표기한 것
- ③ 향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으로, 향가 표기에 사용됨.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여 우리말 문장을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 체계임.

(2) 어휘

중세 국어의 어형과 일치하는 단어들이 많이 발견됨. ‘공주(公主), 생사(生死), 혜성(慧星)’ 등의 일반적인 한자어뿐 아니라 ‘왕생(往生), 자비(慈悲)와 같은 불교계 한자어도 나타남. ‘붓(筆), 먹(墨)과 같은 외래어도 나타남.

### ③ 중세 국어

#### (1) 표기

- 1) 중성 표기: 중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여덟 가지(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었기 때문에 받침에도 이 자음들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이어 적기: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의 중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적음.
  - 예) 누니(눈이), 소닐(손을), 노파(높아)

#### (2) 음운

##### 1) 자음

- ① 경음(된소리) 계열이 등장함.
  - 예) 쑤(꿈), 쑤(딸), 쑤(뿔)
- ② ‘ㅸ, ㅹ’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 예) 쑤(뜻), 쑤(꿀)
- ③ ‘ㅸ(순경음 ㅸ), ㅹ(반치음)’ 등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이 쓰였음.
  - 예) 쑤(서울), ㅸ(가을)

##### 2) 모음

- ① 일곱 개의 단모음(ㅏ, ㅑ, ㅣ, ㅓ, ㅕ, ㅗ, ㅛ)과 다양한 이중 모음(ㅓ, ㅕ, ㅗ, ㅛ, ㅜ, ㅠ, ……) 등이 사용됨.
- ② 모음 조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는 양성 모음이었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ㅞ’는 음성 모음이었음. ‘ㅣ’는 중성 모음.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조사’나 ‘용언 어간+어미’ 결합에서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음.
  - 예) 쑤+을 → 쑤를, 가+ㅑ+ㄴ → 가닐

#### (3) 문법

##### 1) 조사

- ① 주격 조사가 환경에 따라 ‘이, ㅣ, 0(영형태)’로 실현됨.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는 ‘0’로 나타남.
  - 예) 말쑤미(말쑤+이), 네(너+ㅣ), 불휘(불휘+0)
- ② 목적격 조사는 ‘을/를, 을/를, ㄹ’로 실현됨.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을/을’, 모음으로 끝날 때는 ‘를/를’로 나타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를/를’ 대신 ‘ㄹ’이 사용되기도 함.
  - 예) 바블(밥+을), 나를(나+를), 쑤들(쑤+을), 너를(너+를), 머릴(머리+ㄹ)

- 
- ③ 관형격 조사는 ‘의/의’ 계열과 ‘사’ 계열이 존재함.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의/의’로 나타남. 높임의 유정 체언, 또는 무정 체언에는 ‘사’이 나타남.
  - 예 사스딕(사슴+의), 거부비(거북+의), 부텃(부터+사), 나뭇(나무+사)
- ④ 호격 조사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하’가 있었음.
  - 예 님금하 아랴쇼셔(임금이시여, 아소서.)

2) 의문문

- ①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뇨’, ‘-료’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됨.
  - 예 으슴 마를 니르느뇨(무슨 말을 이르느냐?)  
이 엇던 사름고(이 어떤 사람인가?)
- ②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녀’, ‘-려’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아’에 의해 실현됨.
  - 예 저으며 늘구미 잇느녀(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이 쓰리 너희 중가(이 딸이 너희들의 중이냐?)

3) 객체 높임 표현

-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존재함.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일 때는 ‘-습-’, ‘ㄷ, ㅌ, ㅈ, ㅊ’일 때는 ‘-줍-’, 모음이나 ‘ㄴ, ㄹ’일 때는 ‘-습-’으로 실현됨. 또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습-, -줍-, -습-’은 각각 ‘-슬-, -줄-, -술-’으로 실현됨.
  - 예 如來스 우희 듭습고(부처님 위에 덮고)  
父母의 安否 묻줍고(부모께 안부를 여쭙고)  
스승니를 보습고져(스승님을 뵈고자)



4 근대 국어

(1) 표기

- 1) 종성 표기: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를 주로 사용하였음.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함.
  - 예 밋어(밋어), 들보다(들보다)
- 2) 거듭 적기: 이어 적기 방식이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가 나타남.
  - 예 먹글(먹을), 김피(깊이)

**(2) 음운****1) 자음**

- ① ‘ㄷ’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됨.  
예) 스디>스이>사이, 어버디>어버이
- ② ‘ㅂ’계, ‘ㅃ’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뀜.  
예) 뜯>쫄(뜻), 때>채(때)
- ③ 일부 단어에서 격음화(거센소리되기)나 경음화(된소리되기)가 나타남.  
예) 고키리>코키리(코끼리), 꽃>쑉(꽃)
- ④ 17~18세기에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남.  
예) 티다>치다, 윙기디>윙기지

**2) 모음**

- ① ‘ㆍ’가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ㅡ’로 바뀌고, 18세기에는 첫째 음절에서 주로 ‘ㅏ’로 변화함.  
예) 마랏치다>마르치다>가르치다
- ②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던 ‘ㅘ, ㅙ’가 단모음화하여 8개의 단모음 체계(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가 됨. 19세기에는 ‘ㅛ, ㅜ’의 단모음화가 일어남.
- ③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화함.  
예) 물>물, 불>불, 붉다>붉다

**(3) 문법**

- 1)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함. ‘가’는 초기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확대되어 현대 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됨.  
예) 빅가 올 거시니(배가 올 것이니), 우리가 모로는가(우리가 모르는가?)
- 2) 불규칙 활용: ‘ㄷ’이 소실되면서 ‘ㅅ’ 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예) 지서>지어, 이서>이어
- 3)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엇-’이 확립됨.  
예) 머거 마초앗느니(먹어 갖추었느니), 어미 병들엇거늘(어미 병들었거늘)

# 마무리

마인드맵은 전체와 세부사항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강력한 학습 도구로, 문법 공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류로 문법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세부 내용들을 정리하고, 각 문법사항에서 자주 잊는 것들을 정리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법 공부하시길 기원합니다.

